

#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 역할 강화

농어촌공 전북본부, 올해 1863억원 투입... 전년비 10% 증액

내달 관리원 출범... 농지 수요·공급·상시 관리로 종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1,863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0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익을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 관리제도다.

올해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64%, 1,188억원)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

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1만6,795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했다.

또한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443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부채상환을 위해 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은 후 환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시작된 이후 1,831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유지에 도움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경

아울러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에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연금사업은 2011년 첫 도입이래 지난해까지 2,290명이 가입해 월평균 45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추가 지

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가입 연령이 8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정희 본부장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농지은행 지원을 통해, 청년농은 농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또한 이번에 출범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기존의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교유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8일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면,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중심 체계에서 농지상시관리조직사업을 통한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까지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올해도 새만금 투자유치 총력전

새만금청, 특별팀 첫 회의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6일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팀(TF)의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만금산단과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작년의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분야별 투자유치 전략과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관심을 실무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환경과 관련된 입지 규제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개발청 이상재 차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해도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투자유치의 결실물을 거둬내고,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작년 3월 구성된 '새만금 투자유치 특별팀'은 그간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만금 산단의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며, 작년에 1조3,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 기자



26일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관계관과 도(道) 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업무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열었다.

##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박병홍 농진청장, 업무협의회 영상회의 주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6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박병홍 청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관계관과 도(道) 농업기술원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업무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 동안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 체계, 전정 작업자 관리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6만2,000여 사파, 배 재배 농가 가운데 과일 재배를 완료한 농가는 지난 24일 기준, 약 39.7%(사파 33.8%, 배 57.6%)인 2만4,000여 농가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57.2%), 충남(56.4%), 전북(53.8%), 경남(50.8%), 충북(34.8%), 경북(33.9%), 경기

(32.5%), 강원(22.1%) 순이다. 농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예방 체계를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발생 후 매몰 중심으로 추진한 방제 체계를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겨울철 예방 체계, 사전 약제방제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 동안에는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유행할 것으로 의심되는 과일 양을 제거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고 있다.

또한 전정(가지치기) 작업자의 지역간 이동 금지(지침, 행정명령)와 지역내 자체 전정 작업단 이용 유도, 전정 작업 도구 소독 안내 등을 통해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의한 확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병원균이 잠복해 모목 사용, 감염된 나무를 작업한 농기구(전정기, 톱 등) 사용, 곤충·빛물·비탄 등에 의한 전파 등 전염 원인과 확산 경로가 다양하므로 각 전염 경로별 확산 차단 방안을 마련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 정보에 따라 감염위험도를 예측하고 지역별 최적의 약제방제 시기를 결정해 안내하고 있다.

박병홍 청장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농가 충분히 인식하고 각자의 과원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한 농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작년 전북 수출 78억1901만 달러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8% 증가한 78억 1,90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2% 증가한 80억 달러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전라북도 2021년 무역동향 및 202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북 수출은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지난 2년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 수출은 새로운 주력 품목의 성장과 기존 주력 품목들의 수출 회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전북지역의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이자 지난해 최대 수출 품목은 동계제품으로 나타났다. 동계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등방 제품으로 지난해 64.2%가 증가한 6억7,4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전북지역의 1위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2016년 약 1억6,000만 달러로 전체 품목 중 11위 규모였으나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며 1위로 발돋움한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존 수출 주력 품목이던 합성수지(\$8억 6,291만, 55.3%), 정밀화학원료(\$5억 8,217만, 18.8%), 농약 및 의약품(\$5억 3,495만, 61.8%), 자동차(\$4억 9,912만, 24.2%) 등의 품목들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라지역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특히 농기계류의 경우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본 수혜 품목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추미로 농장용 기구는 '하비파머(Hobby Farmer)' 증가와 한국산 농기계 수요 증가로 농기계의 대미 수출이 49.6%가 증가하며 3억7,000만 달러 이상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도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운용전략 3명, 수탁자책임 2명, 국내주식 3명, 국내채권 2명, 해외주식 3명, 해외채권/외환 3명, 사모·벤처투자 3명, 부동산투자 3명, 인프라투자 3명, 증권리스크관리 2명, 대체리스크관리 1명, 기금정보 2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번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자(재직·재직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전문적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직을 수시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2월 9일(오후 3시 마감)까지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사검사와 외부 전문업체의 평가자 회의를 거친다. /김윤상 기자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 올해부터 전면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등

위반하면 직불금 감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도인 첫 시행인 2020년부터 시행했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도입되는 준수사항으로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장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

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필수 교육 방편으로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 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말경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 설 일주일 전 차례상 비용, 전년비 3주 연속 '안정세'

전통시장 26만원

대형마트 35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올해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밝혔다.

공사가 지난 25일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이 26만7천 원, 대형유통업체는 3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4.7% 하락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대형유통업체는 0.2% 하락했고, 전통시장은 0.6%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과 19일에 이어 25일 전국 19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가격 변동 품목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시금치와 도라지가 5%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대형유통업체는 배추와 무·동태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떡국의 주재료인 떡과 쇠고기(양지)는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두 품목 모두 상승했다.

김권형 수급관리처장은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물가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3주 연속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며 "국민 모두가 풍족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성수기 마지막까지 성수품 수급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성수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지난 1·2차 설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 올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 모색

전북도-전북농협, 품목별 대표자 회의... 품목 육성 등 협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올해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 대표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출업체, 행정, 연구기관 등 전북 농산물 수출 관련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실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관측 행사를 적극 펼쳐나가자고 협의했다. 또한 기존 수출국인 홍콩, 베트남, 캐나다, 일본, 동남아 등 신규 수출국

을 발굴해 전북 지역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나간다고 다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도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협력을 긴밀히 할 것"이라며 "농협민의 강점을 활용해 수출 조직화에 앞장서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전북 지역의 교육, 현장컨설팅, 신규품목 발굴 및 육성 등 수출증가 조직화와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